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폭포 시리즈

일본 예술가 호쿠사이의 네 가지 작품을 기념하는
네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

주요 특징:

- **정교하게 재현한 네 가지 작품:** 호쿠사이의 폭포 그림을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로 재현한 네 가지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메티에 라르™의 정수:** 시계 하나당 약 100시간에 달하는 장인의 정성이 깃든 핸드 기요세와 에나멜 다이얼 및 미니어처 페인팅 케이스백
- **19세기 일본 최고의 예술가를 기념:** 호쿠사이 폭포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예거 르쿨트르는 '폭포' 시리즈를 재해석한 네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위치를 통해 19세기 일본 최고의 예술가, 호쿠사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네 가지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 장인들은 수작업을 거쳐 다이얼에 기요세와 에나멜을 장식하고, 케이스백에 미니어처 에나멜과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호쿠사이의 예술 작품을 재현했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시계는 호쿠사이의 여덟 가지 '폭포' 시리즈 중 앞서 선보인 작품에 이어, 시리즈를 구성하는 나머지 네 가지 작품인 *사가미 지방 오야마의 로벤 폭포(Röben Waterfall at Ōyama in Sagami Province)*, *도카이도 사카노시타의 기요타키 칸논 폭포(Kiyotaki Kannon Waterfall at Sakanoshita on the Tōkaidō)*, *미노 지방의 요로 폭포(Yōrō Waterfall in Mino Province)*, *동도 아오이가오카의 폭포(The Falls at Aoigaoka in the Eastern Capital)*를 재해석합니다.



동서양을 잇는 예술의 가교를 기념하는 작품

호쿠사이(1760 년경 ~ 1849 년경)는 동양과 서양의 예술 운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 일본 예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준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주로 19 세기 *우키요에*에 가져온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명성을 얻으며, 200 여 년간 한정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장르를 풍경과 식물, 동물을 아우르는 장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쿠사이는 다작하는 화가 겸 판화가로서 그의 생애 동안 목판화는 *우키요에* 회화를 재현하는 수단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호쿠사이의 영향으로 *우키요에*와 목판화는 일본 미술에 대한 서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인상주의를 비롯한 이후 예술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 년부터 예거 르쿨트르는 호쿠사이의 예술 작품을 기념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리미티드 에디션 타임피스를 선보여 왔습니다.

2018 년: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The Great Wave off Kanagawa)*를 포함한 호쿠사이의 기념비적인 연작, *후지산 36 경(Thirty-Six Views of Mount Fujii)*을 기리는 첫 번째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2021 년: *제국폭포순례(A Tour of the Waterfalls of the Provinces)* 시리즈 중 하나인 *시모스케 쿠로카미산의 키리후리 폭포(Kirifuri Waterfall at Kurokami Mountain in Shimotsuke)*를 재현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리미티드 에디션

2022 년: *제국폭포순례(A Tour of the Waterfalls of the Provinces)* 시리즈 중 또 다른 작품인 *기소가도 뒤편의 아미다 폭포(The Amida Falls in the Far Reaches of the Kisokaidō Road)*를 재현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리미티드 에디션

2023 년: *제국폭포순례(A Tour of the Waterfalls of the Provinces)* 시리즈 중 두 가지 작품인 *기소카이도 오노의 폭포(The Waterfall at Ono on the Kisokaidō Road)*와 *요시츠네가 야마토 지방의 요시노에서 말을 씻긴 폭포(The Waterfall Where Yoshitsune Washed his Horse at Yoshino in Yamato)*를 재현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리미티드 에디션

2026 년: *제국폭포순례(A Tour of the Waterfalls of the Provinces)* 시리즈의 마지막 네 가지 작품인 *사가미 지방 오야마의 로벤 폭포(Rōben Waterfall at Ōyama in Sagami Province, 도카이도*



사카노시타의 기요타키 칸논 폭포(Kiyotaki Kannon Waterfall at Sakanoshita on the Tōkaidō), 미노 지방의 요로 폭포(Yōrō Waterfall in Mino Province), 동도 아오이가오카의 폭포(The Falls at Aoigaoka in the Eastern Capital)를 미니어처로 재현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

호쿠사이의 8 폭 연작, *제국폭포순례*(A Tour of the Waterfalls of the Provinces)는 *우키요에* 회화에서는 처음으로 폭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당시 새롭게 유행하던 프러시안 블루 안료를 적용한 그의 초창기 작품이자 일본 예술의 전환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8 세기 베를린에서 최초의 현대 합성 안료로 개발된 프러시안 블루는 19 세기 초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러시안 블루를 개발하기 전까지 유럽과 일본의 예술가들은 주로 콩과 식물인 인디고와 준보석류를 분쇄한 가루에서 추출한 청색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프러시안 블루는 전통적인 일본의 청색 안료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하고 깊이 있는 컬러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안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용한 호쿠사이는 *후지산 36 경*(Thirty-Six Views of Mount Fuji)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폭포 시리즈에서 프러시안 블루는 그라데이션을 이루어 다채로운 블루 컬러로 놀라운 깊이와 역동성을 더해 힘차게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의 모습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프러시안 블루는 호쿠사이가 선택한 컬러라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풍부한 표현력을 선사하고 일본 판화 예술의 판도를 바꾸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유산을 남긴 기술과 예술의 혁신이었습니다.

폭포의 아름다움: 예술성과 정밀함

평생에 걸친 탐구를 통해 호쿠사이의 예술이 성장해 나갔듯,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 장인들은 끊임없이 공예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호쿠사이의 유명한 제국폭포순례(A Tour of the Waterfalls of the Provinces) 시리즈를 완성하는 마지막 네 가지 걸작을 선보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워치는 뒷면에 제네바 기법을 적용한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을 담았습니다. 14 겹 이상의 에나멜 층을 쌓고 각 층마다 800°C 에서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며, 총 80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나멜 장인은 목판화의 음영 효과 등 호쿠사이 원작 색채를 충실히 재현하는 기술적 난이도를 넘어, 2cm²에 불과한 작은 공간에 정교한 작품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각 프레임의 상단 부근에 있는 카르투슈입니다. 원작의



일본어 캡션을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새겼으며, 놀라운 정확성과 가독성이 특징입니다. 뒷면의 정교한 예술성은 전면 다이얼의 절제되어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각면 처리한 바통형 아워 마커, 도핀 핸즈, 슈망 드 페르 미닛 트랙을 갖춘 앞면 다이얼은 다채로운 기하학과 컬러 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장인 정신을 입증합니다. 핸드 기요세 패턴이 완성되면 반투명 컬러 에나멜을 4~5 겹 도포하며, 각 층마다 별도의 소성 및 건조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컬러를 연출합니다.

미니어처로 재현한 *사가미 지방 오야마의 로벤 폭포(Röben Waterfall at Ōyama in Sagami Province)*에서는 빠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와 깨끗한 물웅덩이에 모여 그 광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게 표현된 인물들은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연약함, 그 대비를 강조합니다. 앞면의 핸드 기요세 다이얼은 발리콘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요세는 정교하게 새겨진 49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은 로즈 엔진 래쉬 기계를 사용해 세 번씩, 총 147 회의 공정을 거친 후 밝은 월넛 브라운 에나멜을 입혔습니다.

*도카이도 사카노시타의 기요타키 칸논 폭포(Kiyotaki Kannon Waterfall at Sakanoshita on the Tōkaidō)*에서는 다른 연작에 비해 폭포수를 훨씬 부드럽고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으로, 마치 부드러운 비단 실타래처럼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폭포는 칸논 사찰 그리고 계단을 오르며 폭포를 감상하고 영혼의 정화를 꿈꾸는 순례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핸드 기요세 다이얼은 물결 패턴으로 장식되어 에메랄드 컬러에 가까운 반투명 에나멜 아래에서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물결 패턴은 정교하게 새겨진 66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은 로즈 엔진 래쉬 기계를 사용해 세 번씩, 총 198 회의 공정을 거쳐야만 기요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노 지방의 요로 폭포(Yōrō Waterfall in Mino Province)*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신이 선물한 술로 변할 수 있는 폭포라는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쿠사이는 거대하고 웅장한 폭포 앞,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인물들을 통해 자연이 빚어낸 폭포의 놀라운 힘과 그 속에 깃든 이야기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앞면의 핸드 기요세 다이얼은 풍부한 올리브 컬러 에나멜을 사용하여 코팅한 새로운



대나무 스타일 패턴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정교한 디자인은 섬세하게 새겨진 48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은 세 번의 개별 공정을 거쳐 총 144 개의 선을 그려야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동도 아오이가오카의 폭포(The Falls at Aoigaoka in the Eastern Capital)*는 바위 위로 물줄기가 강렬하게 쏟아져 내리며 폭포의 근원이 되는 고요한 호수와 그 아래 거친 물결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풍경 속 인물들은 폭포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면의 핸드 기요세 다이얼은 생동감 넘치는 시안 블루 컬러의 에나멜로 마감한 새로운 헤링본 스타일 패턴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기요세는 섬세하게 새겨진 120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은 세 번의 까다로운 개별 공정을 거쳐 총 360 개의 선을 그려야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타임피스는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또는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오르 데코(Or Deco)"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성하는 네 가지 위치는 1991 년에 처음 도입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로 구동되며, 이는 아이코닉 직사각형 리베르소 케이스의 형태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슬림한 2.94mm 의 두께 덕분에 케이스의 얇은 실루엣과 탁월한 착용감이 구현됩니다.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Hz 의 진동수를 제공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칼리버 822 는 손목 위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걸맞은 정밀하고 정확한 무브먼트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폭포 시리즈 – 사가미 지방 오야마의 로벤 폭포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발리콘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뒷면 다이얼: 그랑 퉁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0m

스트랩: 작은 스케일 안감과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폴딩 버클을 갖춘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또는 18K 화이트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중 선택 가능, 모두 교체 가능

제품 번호: Q39334T7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폭포 시리즈 – 도카이도 사카노시타의 기요타키 칸논 폭포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물결 패턴 기요세, 그랑 퉁 에나멜

뒷면 다이얼: 그랑 퉁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0m

스트랩: 작은 스케일 안감과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폴딩 버클을 갖춘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또는 18K 화이트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중 선택 가능, 모두 교체 가능

제품 번호: Q39334T8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폭포 시리즈 – 미노 지방의 요로 폭포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대나무 기요세, *그랑 푸* 에나멜

뒷면 다이얼: *그랑 푸*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0m

스트랩: 작은 스케일 안감과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폴딩 버클을 갖춘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또는 18K 화이트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중 선택 가능, 모두 교체 가능

제품 번호: Q39334T6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폭포 시리즈 – 동도 아오이가오카의 폭포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5.6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헤링본 기요세, *그랑 푸* 에나멜

뒷면 다이얼: *그랑 푸*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0m

스트랩: 작은 스케일 안감과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폴딩 버클을 갖춘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또는 18K 화이트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중 선택 가능, 모두 교체 가능

제품 번호: Q39331T9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